

『통일과 평화』 제2집 1호 원고 모집

『통일과 평화』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연 2회(6월, 12월)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통일의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소는 『통일과 평화』 제 2집 1호의 원고를 모집하며, 마감일은 2010년 4월 20(금)일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특별히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실천과제>의 주제에 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요강 및 원고접필요령은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U 통일연구센터 설립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서울대학교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통일연구의 체계화,
남북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연구센터의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비용
22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센터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일상 속의 통일 : 세대, 지역, 젠더, 이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11월 5일(목)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2009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2009년 남북관계와 국민의식 - 일상 속의 통일 : 세대, 지역, 젠더,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된 통일의식조사는 이제 3년째를 맞아 발표 될 때마다 각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자리잡았다. 전화면접 방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다른 설문조사와 달리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1대 1 개인 인터뷰 방식의 조사 방식을 채용, 그 데이터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년 발표될 때 마다 각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9년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2010년 남북통합지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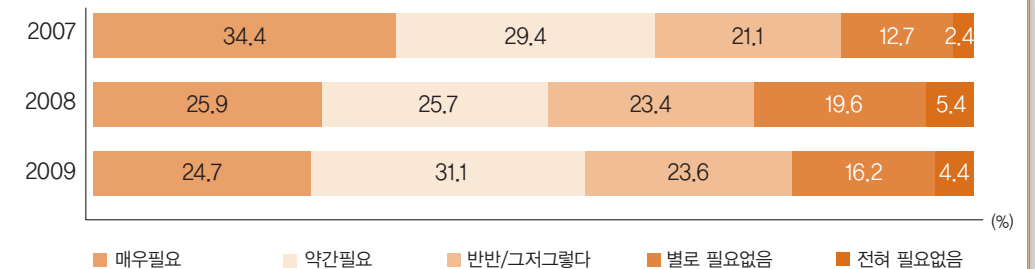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2009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흥미로운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대체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랭되었던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09년에는 대부분의 지수에서 2007년 수준으로 통일의식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V’ 형의 통일인식 패턴이 나타났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 세대, 지역, 성별, 직업, 정치성향, 소득수준 등 모든 인구학적 집단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는 매우 현실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에 반해,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및 현대 아산 직원 억류사건 등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차가워졌지만, 반면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구호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유연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북한에 대한 호감도 하락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국 중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느끼는 나라의 순서는 미국 - 북한 - 일본 - 중국 - 러시아로 일관된 것으로 드러나서 우리 국민이 국제 관계를 보는 시각에서 유연하고도 냉정한 현실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의식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발표가 끝난 후, “청년세대에게 통일을 묻다”라는 제목의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이어졌다. 각종 다양한 NGO 및 학술 단체 등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청년 아홉 명을 초청한 이 자리는 박명규 소장의 사회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시각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의 필요성



Refugees From North Korea : the Journey to Better Health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년 1월 7일(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서울대 국제보건포럼, Center for Refugee and Disaster Response/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등과 공동주최로 “북한이탈주민-보다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 (Refugees From North Korea : the Journey to Better Health)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료지원의 거점이 되는 한국과 북한을 돕고자 하는 미국 보건의료 인력이 만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보건의료 문제를 이해하고 향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3세션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각 세션 별로 1세션은 ‘북한이탈주민과 보건의료’, 2세션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건강관리’, 3세션은 ‘앞으로의 도전과 방향’이라는 소주제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세션별로 특히, 남한 내의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상황과 지원 방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

09:00~09:30	개회사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축사	최용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09:30~12:00	SESSION 1.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의료’		
	좌장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발표	북한 보건의료 개론	Dr. John Lint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3세계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	Dr. W. Courtland Robinson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현장의 목소리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어려움	차지호 박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에 대한 필요와 더 나은 건강을 향한 희망	굿네이버스
13:00~15:00	SESSION 2. 패널 토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건강관리’		
	좌장	김종흥 박사(국립의료원)	
	발표	Access Frame에 기반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모델	박상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하나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1차 진료	전진용 공중보건의(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사례	신미녀 대표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15:30~17:00	SESSION 3. 패널 토론 ‘앞으로의 도전과 방향’		
	좌장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토론	Dr.W.Courtland Robinson(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Dr. John Lint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선화 부장(공릉종합사회복지관), 박정란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폐회사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Dr. W. Courtland Robinson(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	

민족공동체의 현실과 전망 : 분단,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사회사



2009년 9월 4~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사회사학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3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일균 학술평대 조직위원장의 개최선언에 이어 김경일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장, 김복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장이 축사와 격려사를 하였다.

이화여대학술원 석좌교수인 신용하 교수의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기조발제에 이어 분단과 국민국가,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 생활세계와 민족의 문화적 구성, 민족정체성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와 탈북자 문제, 통일이후 독일의 경험 등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학술회의였다.

>>>

9.4(금)

09:20~09:30	개회사 : 인사말
	개회사 : 김경일(한국사회사학회 회장)
	인사말 : 김복수(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장)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09:30~10:00	기조발표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
	신용하(이화여대학술원 석좌교수)
10:10~12:10	제1세션. 분단상황의 국민국가형성과 민족정체성
	사회 : 박명규(서울대)
	탈식민, 해방과 민족담론 : 복원, 재구성, 정치화
	발표 : 박찬승(한양대), 토론 : 정일준(고려대)
	대한민국 국민형성과 민족정체성

발표 : 박명림(연세대), 토론 : 임종명(전남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형성과 민족 정체성

발표 : 김성보(연세대), 토론 : 전재호(성균관대)

13:40~15:40 제2세션. 민족공동체,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사회 : 문옥표(한국학중앙연구원)

월남민, 소수자, 그리고 민족정체성

발표 : 김귀옥(한성대),

토론 :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재일과 민족

발표 : 윤건차(일본 카나가와대),

토론 : 한영애(서울대)

중국조선족공동체와 조선족 정체성

발표 : 박광성(중국 중앙민족대),

토론 : 윤인진(고려대)

16:00~18:00 제3세션. 생활세계와 민족의 문화적 구성

사회 : 김필동(충남대)

스포츠와 민족정체성 : 월드컵의사회사

발표 : 정준영(방송대), 토론 : 김백영(광운대)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족경계 넘나들기

발표 : 박준규(전남대), 토론 : 정은미(서울대)

건축문화와 민족정체성 : 남한과 북한의 건축 양식비교

발표 : 안창모(경기대), 토론 : 채오방(연세대)

9.5(토)

09:00~11:00 제4세션. 변화하는 세계의 민족과민족주의

사회 : 전성우(한양대)

민족주의 담론과 ‘내부배제’의 논리 : 재외 동포법 논쟁과 지역주의의 재해석

발표 : 박종일(국민대),

토론 : 이준식(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위원회 상임위원)

‘한인’의 분류, 경계 획정,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발표 : 이철우(연세대)·이호택(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토론 : 서호철(한중연)

독일의 분단/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논의

발표 : 이동기(서울대), 토론 : 한운석(고려대)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통일평화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산림청의 공동 후원으로 2010년 2월 9일 (화) 13:00~18: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의 제하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학술 심포지엄은 지난 시기 이루어진 북한산림녹화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향후 기후변화대응과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산림녹화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약 1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고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前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정두언 국회의원, 산림청 정광수 청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서 김성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I’에서는 이정민 사무국장(평화의 숲)과 안선경 부장(겨레의 숲)이 각각 평화의 숲과 겨레의 숲의 북한산림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강원도청)은 남북 산림교류협력의 모범사례로서 강원도의 산림병해충 방제의 사례를 설명하였고,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경기도청)은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소개한 뒤 종합적인 산림녹화사업 완수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II’에서 산림녹화분야의 전문가·학자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종화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분석을 통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도시 및 취락 주변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산림복구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여창 서울대 교수는 산림녹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특히 그는 AR CDM과 REDD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동균(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산림녹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의 발표에서 조림 사업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세션에 이어 박명규 소장(통일평화연구소)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이경준 서울대 교수가 북한산림녹화를 위해 아카시아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단장도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서 북한산림녹화 사업을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와 오정수 겨레의숲 이사도 같은 맥락에서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의지와는 달리 현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산림녹화와 관련한 민간단체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

13:00~13:30
개회사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축 사 고건(전 국무총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현인택(통일부 장관)
정두언(국회의원)
정광수(산림청장)

13:30~15:10
주제발표 I
사 회 김성일(서울대 교수)
발 표 평화의 숲 북한 산림사업의 성과와 계획
겨레의 숲 북한 산림사업의 성과와 계획

이정민(평화의 숲 사무국장)
안선경(겨레의 숲 부장)

강원도 북한 산림사업의 성과와 계획
경기도 북한 산림사업의 성과와 계획

황병일(강원도 남북협력담당관)
조철희(경기도청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15:30~16:40
주제발표 II
사 회 김병섭(서울대 교수)
발 표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조사
북한산림녹화와 기후변화대응
북한산림녹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박종화(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윤여창(서울대학교 교수)
박동균(국립산림과학원)

16:50~18:00
토론
사 회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토 론 이경준(서울대학교 교수)
우기종(녹색성장위원회 단장)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강찬수(중앙일보 기자)
오정수(겨레의 숲 이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의 통일학 연구를 대표하는 두 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2010년의 한반도 정세를 같이 토의해보자는 취지의 이 행사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라는 제목으로 치러졌다. 20일의 제 1회의에서는 통일평화연구소의 김병로 교수 사회로 정은미 박사가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정박사는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과 종합시장 폐쇄 등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논하면서, 화폐개혁은 시장 확산에 의해 약화된 중앙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조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론에 밀려 보여준 일련의 양보적 태도는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 교수는 “후계자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권력구조 변화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이 교수는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지, 당총비서직과 국방위원장직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계자가 현재 공식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후계자가 유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얼마나 확립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회의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최완규 부총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충남대 김학성 교수는 2010년 북미관계 전망을 하면서 북미고위급대화, 6자회담의 재개와 평화협정,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지원, 북한 인권 등의 이슈를 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근식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2010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였는데, 2009년의 남북관계를 “일부 쟁점이 해결되는 가운데 근본적 불신이 온존하고 교착 국면이 지속되면서 관계 정상화는 미흡”했다고 진단한 가운데 2010년에는 남한 정부가 북한이 내민 대화의 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미 협상의 진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 이후 이어진 친교 시간에 양 연구소 관계자들은 앞으로 두 연구소의 친목을 더욱 깊게하고, 통일학 연구의 발전에 같이 힘쓰기로 다짐하였다.

2009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제2차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 인권·보건·네트워크”



2009년 12월 4일(금) 10:00~18:00에는 2009 제2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 인권·보건·네트워크”를 주제로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회의는 통일·인권, 제2회의는 보건·의료, 제3회의는 네트워크·개발협력을 각기 포괄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장달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는 윤석민 교수가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 기본 이념으로서의 ‘통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박명규 교수는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기구·단체의 활동과 동향 분석”을 발표하였다. 윤석민 교수는 방송의 기본이념으로 “민족동질성”과 “통일”에 대한 정책적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명규 교수는 발표에서 국내외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주된 행위자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북 인권정책과 국제 연대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제2회의는 정효지 교수의 사회로 최정화 교수가 “새터민 여성의 생리적 환경적응 수준진단 및 처방에 관한 연구”, 황상익 교수는 “1980, 90년대의 북한 보건의료”를 각각 발표하였다. 최정화 교수는 발표에서 입국 초기의 새터민과 입국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온열적 생활환경 요소를 설문 조사 및 실측하고, 내열성 및 내한성 측정 실험을 실시하며, 행동체력을 측정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황상익 교수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 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의사들이 북한 보건의료체계 형성 및 발전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김병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에서는 이순형 교수가 “북한사회의 공·사적 세계와 북한주민의 관계 및 소통 특성”을 발표하였으며, 김재영 교수가 “북한개발협력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리의 과제”, 신범식 교수가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 4망(網)의 국가전략”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순형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주민들이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부딪치는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통해 이들의 공·사적 세계의 분리를 제시하였다. 김재영 교수는 개발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대북 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신범식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사례로써 ‘21세기 네트워크 세계 정치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여 ‘한반도 주변 4망(網)이 벌이는 네트워크 국가 전략’의 본질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

10:00~12:00	제1회의 통일·인권
사 회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1 발표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 기본이념으로서의 “통일” 제도화방안
토 론	이주철(KBS)
2 발표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기구·단체의 활동과 동향 분석
토 론	서보혁(이화여자대학교)
13:00~15:10	제2회의 보건·의료
사 회	정효지(서울대 보건학과)
3 발표	최정화(서울대 의류학과) 새터민 여성의 생리적환경적응 수준진단 및 처방에 관한연구
토 론	정운선(안동대학교)
4 발표	황상익(서울대 의사학) 1980, 90년대의 북한 보건의료
토 론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15:30~18:00	제3회의 네트워크·개발협력
사 회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5 발표	이순형(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북한사회의 공/사적 세계와 북한주민의 관계 및 소통 특성
토 론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6 발표	김재영(서울대 경제학부), 임강택(통일연구원) 북한개발협력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리의 과제
토 론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7 발표	신범식(서울대 외교학과)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4망(網)의 국가전략 :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토 론	김치욱(세종연구소)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Facilitate Korean Unification Process



2010년 2월 2일(화)과 2월 3일(수) 양일간 10:00~17:10까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Facilitate Korean Unification Process)”을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움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서울대학교가 수행하는 통일평화학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학제적 연구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로서 학교 내외의 기대를 모았다.

1일차인 2010년 2월 2일(화)에는 대북정책, 경제·인구, 문학·언어를 각기 주제로 한 총 3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일차인 2월 3일(수)에도 3회의에 걸쳐 교류협력·통합·의식, 통합·거버넌스, 법제·교육을 주제로 한 회의가 이어졌다. 1일차의 제1회의(대북정책)에는 윤영관(서울대) 교수가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백창재(서울대) 교수는 “국내 정치체제변동이 대북정책에 미칠영향-한미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영관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미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 이슈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구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이었는지 논의하였다. 백창재 교수의 발표에서는 정권교체로 상징되는 국내정치 체제 변동을 전후한 시기에 대북정책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하였다.

제2회의(경제·인구)에서는 김병연(서울대) 교수가 “북한경제에서의 정부와 시장-시장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박경숙(서울대) 교수가 “북한의 인구-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를 발표하였다. 김병연 교수는 탈북자 조사 자료를 통하여 북한 경제의 시장화의 정도와 추이, 구조와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박경숙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2008년 시점까지 인구변동의 성격을 추정하였다.

제3회의는 북한의 문학과 언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는데, 권영민(서울대) 교수는 “북한 문학의 재조명-자료로 본 북한 문학”, 권재일(서울대) 교수는 “〈조선어학전서〉와 북한의 언어학”을 발표하였다. 권영민 교수는 북한문학의 전반적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 가운데 하나로써 북한 문학의 성립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권재일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어학전서〉전47권을 대상으로 그간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학 연구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북한의 언어학 연구 성과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한의 언어학 연구가 서로 협력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 1일차 2010년 2월 2일(화) 10:00~17:10 대북정책·경제·문학

10:00~12:00	제1회의 대북정책
사 회	함택영(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 발표	윤영관(서울대 외교학과)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의 정치경제
토 론	박형중(통일연구원)
2 발표	백창재(서울대 정치학과) 국내정치체제변동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 한미일 사례를 중심으로
토 론	이삼성(한림대 정치행정학과)
13:30~15:10	제2회의 경제·인구
사 회	홍두승(서울대 사회학과)
3 발표	김병연(서울대 경제학과) 북한경제에서의 정부와 시장 : 시장화가설의평가를 중심으로
토 론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발표	박경숙(서울대 사회학과) 북한의 인구 :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2/2)
토 론	이석(KDI)
15:30~17:10	제3회의 문학·언어
사 회	홍윤표(연세대 국어국문학과)
5 발표	권영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북한문학의 재조명 : 자료로 본 북한 문학
토 론	전영선(단국대)
6 발표	권재일(서울대 언어학과) 『조선어학전서』와 북한의 언어학
토 론	최호철(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본 심포지움의 2일차(2월 3일)에는 교류협력·통합·의식을 포괄하는 내용의 주제들이 3회의에 걸쳐 차례로 발표되었다. 제4회의에서는 농업·에너지를 주제로 한 김완배(서울대) 교수의 “대북한 농업지원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전망”이 발표되었으며, 허은녕(서울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를 발표하였다. 김완배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농업지원과 남북농업교류협력 사업의 현황과 평가, 전망 및 과제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허은녕 교수는 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 하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제5회의는 통합·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로 정근식 교수가 “대북포용정책 10년의 거버넌스 구조와 동학”을 발표하였으며, 임홍배

교수가 “독일통일 20년 국가통합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발표하였다. 정근식 교수는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관찰해온 협력체조직의 사례로 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민주평통, 북민협 등 네 사례를 검토 제시하였다. 임홍배 교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과 에너지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독일의 국가 통합관련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6회의는 법제·교육 관련 주제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철수 교수가 “남북간 법제통합의 과도기적 과제와 전략”을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김찬중 교수는 “통일 후 남북통합 과학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철수 교수는 이른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남북측간의 이질성을 줄이고 법치관념을 확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개진하였으며, 김찬중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맥락,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로 탈북 청소년의 학습자 정체성 형성을 연구 발표하였다.

각기 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대학(한림대, 한양대, 단국대, 고려대, 명지대 등)과 연구원(통일연구원과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 2일차 2010년 2월 3일(수) 10:00~17:10 교류협력·통합·의식

10:00~12:00	제4회의 농업·에너지
사 회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7 발표	김완배(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대북한 농업지원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전망
토 론	권태진(농촌경제연구원)
8 발표	허은녕(서울대 에너지시스템학과) 지속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 장기 정책연구
토 론	이재승(고려대학교 국제학부)
13:30~15:10	제5회의 통합·거버넌스
사 회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9 발표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대북포용정책 10년의 거버넌스 구조와 동학-민화협, 민주평통, 6.15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토 론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10발표	임홍배(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독일통일 20년 국가통합관련 기초자료 조사
토 론	이동기(서울대 서양사학과)
15:30~17:10	제6회의 법제·교육
사 회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11발표	이철수(서울대 법학과) 남북간 법제통합의 과도기적 과제와 전략
토 론	이주태(통일부 통일정책기획과)
12발표	김찬중(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통일 후 남북통합 과학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 청소년의 학습자 정체성 형성과정 탐색-지구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토 론	조정아(통일연구원)

제26차 통일학 세미나_“베를린 장벽 붕괴 20 주년” 특별 간담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원은 2009년 9월 7일(월) 17:00~18:00,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자유베를린대(Free University of Berlin) 부총장 Ursula Lehmkuhl을 모시고 제26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 Lehmkuhl 부총장은 미소 양극 체제 이후, 혹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민족주의/인종주의의 재등장, 서구에서의 아시아권의 위상의 강화로 인한 지역 경계의 재구성과 근대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 간의 균열 발생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등에 관해 논하였다. 강연에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 세미나에 참여한 약 10여명의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한반도의 맥락을 고려할 때 독일 통일이 주는 함의를 묻는 질문에 Lehmkuhl 부총장은 시스템 충돌(system conflict)이나 거시적인 관점 뿐 아니라, 보다 일상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제27차 통일학 세미나_Relevance of European CBMs in inter-Korean and Chinese-Taiwanese Relation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9월 15일(화) 11:00~12:30에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잉골프 키에소우(Ingolf Kiesow) 스톡홀름대학교 교수(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를 모시고 “Relevance of European CBMs in inter-Korean and Chinese-Taiwanese Relations”의 주제로 제27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 잉골프 교수는 한반도와 중국-대만의 양안관계의 역사를 신뢰구축의 맥락에서 비교한 뒤, 유럽의 신뢰구축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다자 협력의 조건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잉골프 교수는 6자회담과 관련하여, 동북아의 공동안보를 위해 6자회담이 갖는 다자적 협력체로서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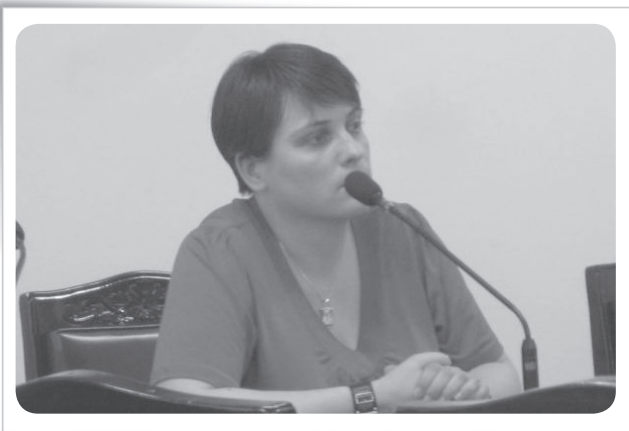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는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이근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이근 교수는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의 상태이며, 신뢰구축보다는 북한정권 붕괴 혹은 한반도의 긴급상황에 대한 위기대응(contingency planning)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미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마인드 세트를 신뢰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8차 통일학 세미나_Shifting Attitudes to Unification and Nationalism amongst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over the Last Two Decade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9.22(화) 14:00~16:00에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호주국립대학교의 엠마 캠프(Emma Campbell)을 초청하여 “Shifting Attitudes to Unification and Aationalism amongst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over the Last Two Decades”의 주제로 제28차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캠프는 대학생들을 목표 집단으로 하여 1985~2008 에 행해진 25개 가량의 서베이를 취합 및 분석한 결과를 논하였다. 캠프는 한국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점진적인 통일을 보다 선호하게 되었고, 남북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진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29차 통일학 세미나_오바마 행정부 이후 북미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US-North Korea Relations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fter Obama Administration)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9.24(목) 14:00~15:30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대회의실에서 Virginie Grzelczyk 교수(영국 Surrey 대학교 정치학과)를 초청하여 “오바마 행정부 이후 북미관계와 동아시아 안보(US-North Korea relations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fter Obama Administration)”의 주제로 제29차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다. 본 세미나에서 Grzelczyk 교수는 자신의 발표에서 크게 세 가지 항목-(1) ‘불량국가(Rogue State)’ 개념 검토 (2) 불량 국가의 맥락에서 북한의 위협을 틀지우기 (3) 유럽의 역할과 관여-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제관계의 맥락뿐 아니라 체제유형이 갖는 불량국가적 요소는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제30차 통일학 세미나_The Experience of Knowledg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2009년 12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비네 버가트(Sabine Burghar)를 초청하여 북한과의 지식협력사업에 관한 제30차 통일학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자비네 버가트는 서울에 있는 독일의 나우만재단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과 추진했던 지식협력 사업 경험을 소개하였다.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개발지원으로 발전하고 있고 점차 북한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 지식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상호간의 이해부족과 북한측의 지나친 경계로 인해 북한과의 지식협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서로에 대한 기초지식과 신뢰가 더 필요하고 북한의 의지가 더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31차 통일학 세미나_2010 년 북한정세 및 북중관계 전망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1.6(수) 14:00~16:00에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10년 북한정세 및 북중관계 전망”의 제하에 김강일 교수(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를 모시고 제31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복합적인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스템 정리와 중앙정부의 경제체계에 대한 통제권 수립의 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김강일 교수는 만일 북한정부가 치밀한 계획으로 화폐개혁을 주도한다면 사회의 생산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중관계와 관련하여 그는 중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제32차 통일학 세미나_2010 년 중국의 대북정책 및 북중관계 전망

통일평화연구소는 2010.1.13(수) 14:30~16:30에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2010년 중국의 대북정책 및 북중관계 전망”의 제하에 조호길 교수(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를 모시고 제32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조호길 교수는 올해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정통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북한이 활발한 해외교를 통해 대외원조 및 협력을 이끌어내고 내부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강연에 이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제15차 통일정책포럼_최근 북미관계 및 6자회담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9.29(화) 14:00~16:00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동백홀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을 모시고 “최근 북미관계 및 6자회담”의 제하에 제15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위성락 본부장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이후 진행된 북미간 접촉 소식과 최근 미국의 입장 등 한미간에 논의된 대화내용을 브리핑하였다. 강연에 이어서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등 약 15인의 참석자들은 위성락 본부장과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제16차 통일정책포럼_북미관계 전망 : 6자 회담 및 비핵화 문제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12월 1일 14:30~16:00 미국의 빌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특별자문관인 토니 남궁 박사를 초청하여 “북미관계 전망 : 6자회담 및 비핵화 문제” (Recent US-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Future of the Six Party Talks and Denuclearization)를 주제로 제16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남궁박사는 미국이 압박 일본도의 대북정책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선화하였고 포괄적패키지를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그랜드바겐 제의는 너무 크고 방대한 개념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6자회담 이후 북한이 3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북한내부 소식을 전해주었고,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했다.

제5차 NGO포럼_대북지원과 인권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10.13(화) 11:00~12:30 서울대 교수 학습개발센터에서 “대북지원과 인권”의 제하에 법륜 스님(좋은벗들 이사장)을 모시고 NGO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 법륜 스님은 인도적 지원의 ‘본래적’ 목적은 북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뒤, 인도적 지원의 순수한 지원으로서의 성격과 전략적 차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논하였다. 또한 그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차관 형식보다는 일정 조건 하의 무상지원, 단기적으로 신속한 대량의 식량지원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본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통일아카데미 제6기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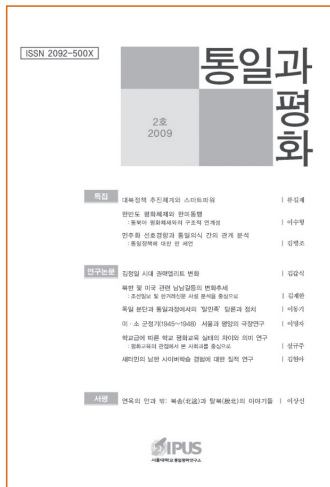


통일평화연구소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인 통일아카데미 6기의 수료식이 11월 24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6기 통일아카데미는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 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의 수업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36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28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12월 19일(토)에는

현장학습체협의 일환으로 임진각 일대의 생태평화공원 등을 견학하였다. 또 제6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통일아카데미가 귀하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연구나 지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횟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10월 6일	(입학식) 분단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구상	김병로(통일평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2주	10월 13일	꼬여있는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고경빈(前 하나원 원장, 통일부 국장)
3주	10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관계	이상신(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4주	10월 27일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체제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주	11월 3일	남북경협현황과 전망	박홍렬(現,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前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6주	11월 10일	남북방송교류를 통해 본 북한사회	오기현(SBS 피디)-조용필 공연 등 10년간 방송교류사업 참여
7주	11월 17일	북한이탈주민의 과거와 현재로 보는 통일미래 : 지금부터 함께 만드는 일상속 평화	박정란(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11월 24일	(수료식) 다문화시대의 연성복합통일론	박명규(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통일과 평화』 2009 2호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학문적 준비를 목표로, 지난해 6월 창간한 통일평화연구소의 저널 『통일과 평화』 제1집2권(2호)이 12월22일 발간됐다. 이번 호 『통일과 평화』에는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문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문들과 서평이 수록돼 있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을 분석한 논문은 한국의 남북관계와 민족에 대한 논의에 좋은 참조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평화』에 수록된 논문들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겸무연구원

- 오연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센터 [ADI : Asia Development Institute] 소장)는 2009년 12월 22일(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4호에서 『G20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 : 한국의 성공적 발전 모델을 아시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Sharing Korean Policy Experiences with Asia : Korea's Role in the G20 meeting)』이라는 주제 하에 주한 인도, 주한 인도네시아, 주한 카자흐스탄, 주한 네팔 등 아시아 각국의 대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은주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며 2010년 상반기평양과학기술대학교 개학을 위해 기자재, 인력, 커리큘럼 등을 준비하였다.
-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어영문학과)는 방문교수로 (2009.9~2010.8)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교의 아시아 학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객원연구원 및 연구조교

- Emma Campbell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9.9.25 연구프로젝트 마치고 영국으로 출국
- 조덕현 조교 후임으로 황희돈 조교 신규 (2009.8.1~2010.7.31)

해외교류 및 방문



- 2009년 8월 26일~29일 박명규 소장과 김병로 교수는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코리아학 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사회와 학원 학자들과 토론하였다.
- Ursula Lehmkuhl 자유 베를린대 부총장 본 연구소 방문 (2009년 9월 7일)
- 2009년 10월 24일~27일 박명규 소장과 김병로 교수는 중국 뤼순에서 개최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현장견학에 참가하였다.
- 이민룡 육군사관학교 교수 부장 본 연구소 방문 (2009년 11월 10일)

통일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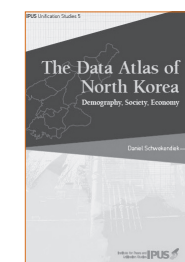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와 서울대 미술관(관장 정형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의 주제로 공동주최한 통일 포스터 공모전 (2009.10.26~11.2)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2009.12.1(화) ~ 12.13(일) 서울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본 전시회는 과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공공의 기억에서부터 현재의 분단 현실 및 미래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성을 담은 작품들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시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 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 받아

서울대 본부가 실시한 '2009년 연구소(원) 평가'에서 통일평화연구소는 개별연구소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우수(A1)'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키고,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본부의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본 연구소는 그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연구와 학술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IPUS 신간안내



-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IPUS Unification Studies 5
Daniel Schwkendiek 저
2009.10



-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통일학신서 5
이순형·김창대·진미정 저
2009.11.15



- 『2009 통일학조사』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6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저
2009.12.31

〈통일아카데미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7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10. 3. 2(화) ~ 3. 31(수)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10년 4월 6일(화) ~ 5월 25일(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8회, 현장학습 1일 별도 추가)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내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